



탄자니아의 경제 개혁과 빈곤 퇴치 전략*

김영제
연세대학교

이규재
연세대학교

본 논문은 탄자니아의 경제 개발 과정을 통한 경제 개혁과 국가 빈곤 퇴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탄자니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계열 자료와 지역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 지출과 경제 성장 그리고 빈곤 퇴치 전략에 대한 부분별 개혁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많은 아프리카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하듯이 탄자니아 역시 동아프리카 최빈국으로 국가 개발의 대부분의 예산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 성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공공 지출별 추이만 보더라도 농업 부분, 도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퇴치에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탄자니아의 경제 개혁을 통한 빈곤 퇴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의 개선 향상, 좋은 거버넌스 구축 및 부패방지, 민관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가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제어: 탄자니아, 경제개발, 경제개혁, 빈곤퇴치, 빈곤율]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24)

I. 서론

최근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사회주의 또는 우자마 사회주의(Ujamaa Socialism)를 앞세운 정부 주도의 국가 건설과 국민 통합 정책이 ‘부족주의(tribalism)’를 버리고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1985년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거시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 지출의 합리화, 공무원 조직의 축소, 농업 등 정부 보조금 축소 등의 보수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이루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1995년 30%에서 2004년 4.4%로 감소하였으며, 외환 보유고 또한 1995년 \$에서 2004년 \$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식 환율이 안정을 찾고 GDP 성장 또한 1995년 2.6%에서 2004년 5.2%로 상승하였다.

2001년 탄자니아 정부는 대표적인 국가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장기 개발 계획인 Vision 2025와 빈곤 감소 전략으로 중기 개발 계획인 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NSGRP) 전략을 도입하였다. 주요 골자로는 경제 성장 및 빈곤 감소, 삶의 질 복지 수준 향상, 거버넌스 체고 및 책임성 증진을 목표로 빈곤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분야의 정부 투자의 증대이다. 경제 성장 및 빈곤 감소는 안정된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이하 인구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아 양질의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삶의 질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의무 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록률 향상과 보건 센터 및 병원 접근성 개선에 두었으나, 아직까지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탄자니아 정부는 빈곤 퇴치를 위해 경제 개혁과 더불어 인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빈곤 감소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권이 모든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 포기하거나 정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1년과 2001년 사이 도시 빈곤율은 10% 이상 감소한 반면 농촌 지역의 빈곤율 감소는 2% 수준에 머물고 있어 농촌 지역의 빈곤율 감소 수준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이는 빈곤을 보다 신속히 퇴치해야 할 정부의 농촌지역에 대한 복지 정책의 미진과 함께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개혁에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탄자니아의 경제 개발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경제 개혁과 빈곤 퇴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경제 개혁과 빈곤 퇴치

1. 경제 개발과 성장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4위의 천연 및 관광 자원 부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최근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빈곤 퇴치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10년 추정 명목 GDP가 300달러에 미치지 못하며, 10년 GDP대비 재정 수지가 -6.4%로서, 2010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 진행 등으로 재정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탄자니아의 경제 정책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독립 후의 1단계는 1961년~1966년, 2단계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 1967년~1985년, 3단계 경제 개혁 시기인 1986년~2005년으로 나누어진다.

1) 1단계 경제 정책 시기: 1961년~1966년

1단계 경제 정책은 민간 분야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하였다. 본 시기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개방형 시장 경제를 촉진하였다. 수출 작물을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농업 부문의 평균 부가 가치를 창출하였다.

〈표 1〉 탄자니아의 경제성과, 공공 지출 및 사회 지표(1961년~2001)

	1961-1966	1967-1979	1980-1985	1986-1992	1993-2001
실질 GDP 성장 (%)	5.7	4.7	1.1	5	3.8
1인당 국민소득 증가 (%)	2	0.7	-1.5	1.2	0.5
인플레이션(%)	4	10	36.1	30	18
농업분야 부가가치창출(% of GDP)	53	41	50	54	49
제조업분야 부가가치 창출(% of GDP)	5.3	1.1	7	8.1	7.4
환율(공식적)	5	7	12	174	736
국제수지(% of GDP)	3.5	-4.3	-5	-16.1	-11
Goss 투자(% of GDP)	18.5	24.3	19.9	28	21
공공지출(%)					
농업	-	10.5	7.3	5.6	2.68
교육	-	13.1	10.7	6.6	11
건강	-	6.3	5.2	5	5.6
공공 부채	-	7.5	17.9	28.3	14
인적 및 사회지표					
초등학교 취학률		91.4	87.8	70.2	67.2
1인당 칼로리 섭취량		2,265	2,246	2,171	1,946

자료: Calculated and extracted from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Economic Surveys -Various years) and Bank of Tanzania, Dar es Salaam; and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03).

2) 2단계 우자마 사회주의 시기: 1967년~1985년

탄자니아는 1967년 아루샤 선언(The Arusha Declaration)을 채택하여, 억압 및 착취에 대한 투쟁, 생산과 교환의 주요 수단을 노동자 및 농민의 통제 하에 두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 원칙의 적용, 민주주의적 정치 원리의 수용, 아프리카의 전 세계의 노동자 및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결의하여 농촌 사회주의를 확립시키기 위한 정책 지침서인 「우자마 촌락화」(Socialism and Rural Development)를 발표하였다. 우자마 촌락화 사업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일하기보다는 자조 정신에 기초를 두고 농촌을 사회주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탄자니아 정부는 우자마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 기업이 국영화되어 시장의 대부분이 독과점을 이루었다. 주요 식품가공업, 은행, 보험, 수출 회사 등이 먼저 국유화되었으

며, 정부가 주식, 수출 작물, 주요 물품 등의 가격을 통제하였다. 우자마 사회주의 시기의 경제적 성과는 고르지 못하게 나타났다. 실질 GDP는 연간 4.7% 성장하였고, 투자는 1970년대 줄곧 활발하게 나타났지만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는 악화되었다. 1980년과 1985년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36%로 급상승하고 무역 수지가 계속 악화되자 정부는 국가 경제 생존 프로그램(National Economic Survival Programs; NESP)과 1983년에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 지출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와 생산 증대를 통한 수출 증대와 식량 부족의 타파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 현황을 보면 먼저 1981년~1985년 GNP 성장률은 연평균 0.5%에 불과하여 경제의 정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평균 3.2%의 인근 증가율과 결부되어 식량 부족, 실업률 증가 실질 소득 감소 등 제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1차 식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입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외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재정 적자폭이 1983년 819백만 달러에서 1985년 950백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1981년~1985년 기간 동안 탄자니아의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탄자니아 주요경제지표(1981년~1985년)

	단 위	1981	1982	1983	1984	1985
GDP	백만달러	5,489	5,155	4,637	-	-
1인 GDP	달 러	269	236	183	137	-
GDP 실질성장률	%	-1.1	1.3	-0.4	2.5	-
소비자물가상승률	%	25.6	29.0	27.0	35.8	25.0
총투자율	%	22	20	33	-	-
국민저축율	%	13	16	17	-	-
환율	Sh/US\$	8,284	9,283	11,143	15,292	17,472
재정적자	백만달러	-	-	819	839	950
수출수입	백만달러	-	-	379	363	350
총외채도입잔액	백만달러	-	-	-	-	3,500
인구	백 만 명	19.2	19.8	20.4	21.1	-

자료 : IMF, IFS, 1986. 5 및 Africa Research Ltd., Africa Research Bulletin, 1986.

3) 3단계 경제 개혁 시기: 1986년~2005년

탄자니아 정부는 1986년부터 농업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의 규제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업 분야에 대한 개혁의 내용으로는 정부의 생산 및 소비자 물가 고정 중단, 수출입 세 인하, 농업 보조금 폐지, 기타 식량의 유통 및 작물 수출에서의 정부 독과점 폐지, 국영 기업의 민영화, 민간 분야의 촉진 등이다.

개혁 과정 초기인 1986년에서 1992년 사이 실질 GDP가 연평균 5% 성장하였으며, 일인당 소득이 연간 1.2% 성장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분야도 1967년에서 1985년까지 연평균 4%이던 것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수입 경쟁이 과열되어 많은 산업이 무너지고, 농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다.

1993년에서 2001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은 연간 3%에서 5%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일인당 소득 증가는 연간 1% 이하에 머물렀다. 전체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부문이 여전히 높지만, 관광, 광업, 교통 등의 기타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탄자니아는 민간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특히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협력 하에 설립된 BEST (Business Environment Strengthening for Tanzania - 탄자니아의 사업 환경 강화 프로그램)가 있다.

현재 정부 주도하에 실시중인 BEST프로그램은 여러 부문에 걸친 5개년 프로그램으로 탄자니아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기업들의 행정 및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및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3년 12월에 시작된 BEST는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세계은행 등 5개의 개발 파트너들이 공동 후원하고 있다. BEST의 특별 관심분야는 사업 인허가, 토지 규제 및 노동법의 개혁이다. 사업 활동 등록 법안(Business Activities Registration Act, 2007)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탄자니아 노동법의 제 2단계 검토가 진행된 상황이다. BEST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혁들은 사업 분쟁을 조정하는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과 보다 많은 법원을 북

부 지방에 설립하고 민간 소송 절차를 개혁하는 작업이다. 더 나아가 기존의 토지 규제 법안 및 모기지 제도를 개혁하여 토지 시장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고 부동산 중개업 또한 활성화하고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혁 활동의 결과 세계은행이 발간한 “2007년 기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in 2007)” 보고서에서 탄자니아는 10대 개혁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 개혁으로 개혁 후기에는 공공 지출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보건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반면 공공 부분의 부채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탄자니아의 최빈 부채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HIPC)¹⁾ 가입을 계기로 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탄자니아는 2006년 6월 G8 정상 회담에서 MDRI에 의거 IMF, World Bank, ADF로 받은 US\$24.3억의 자금을 추가로 탕감 받음으로써 외채 비중이 2005년 말 GDP 대비 64.2%에서 2006년 말 29.9%로 감소하였다(한국무역보험공사 2009). 탄자니아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외채 관련 지표 추이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탄자니아의 외채 추이(2006년~2010년)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외채	4,240	5,063	6,195	7,070	7,932
- 공공 증장기	2,929	3,684	4,360	5,076	5,706
- 민간 증장기	6	4	4	5	6
- IMF	13	18	17 ^a	262	373
- 단기	1,293	1,258	1,813	1,727	1,847
외채잔액/GDP비중	29.9	30.9	30.7	33.0	32.5
D.S.R(Paid)	3.2	2.5	2.6	2.7	2.7
D.S.R(Due)	6.0	4.5	3.0	5.3	2.7

주 :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자료: EIU, Country Risk Service, October 2009, Tanzania

1)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1990년대에 과다 부채 빈곤국의 부채 탕감을 내건 HIPC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40개국을 잠재적 부채 국가로 분류하여 부채를 구제 하였다.

2. 빈곤 문제 및 빈곤 퇴치 전략

1) 빈곤 문제

탄자니아의 산업 구조상 농업 부문의 성장을 통한 일인당 경제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빈곤 퇴치는 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기본 욕구(Basic Needs) 통계를 통해 본 1991년과 2001년 사이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38.6%에서 35.7%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식량 빈곤선을 사용해서 빈곤율을 보면 1991년 전체 인구의 21.5%에서 2001년 18.7%로 감소하였다. 탄자니아도 여러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의 빈곤율이 도시 지역의 빈곤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르에스살렘에서는 인구의 17.6%만이 기본욕구 이상의 빈곤선 아래에 있는 반면 농촌 인구는 38.7%에 달한다. 또한 1991년과 2001년 사이 도시 빈곤율은 10% 이상 감소한 반면 농촌 지역의 빈곤율 감소는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촌 지역의 빈곤율 감소 수준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탄자니아의 빈곤에 대한 1991과 2000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탄자니아의 빈곤 (1991년/2000년)

		Dar es Salaam	Other Urban Areas	Rural Areas	Mainland Tanzania
1991년	Food Poverty	13.6	15	23.1	21.6
	Basic Needs	28.1	28.7	40.8	38.6
2000년	Food Poverty	7.5	13.2	20.4	18.7
	Basic Needs	17.6	25.8	38.7	35.7

자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Development Strategy and Governance Division, April 2005.

이처럼 빈곤율은 탄자니아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Lindi와 Mtwara 같은 남부 해안 지역과 빅토리아 호수 인근 지역인 Mara, Mwanza, Shinyanga 지역이 가장 높다.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탄자니

아 행정 지역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행정구역별 빈곤율(2000년-2001)

행정구역	Basic Needs	Food	행정구역	Basic Needs	Food
Dodoma	34	13	Morogoro	29	14
Arusha	39	25	Mtwara	38	17
Coast	46	27	Mwanza	48	30
Iringa	29	10	Rukwa	31	12
Kagera	29	18	Ruvuma	41	27
Kigoma	38	21	Shinyanga	42	22
Kilimanjaro	31	11	Singida	55	28
Lindi	53	33	Tabora	26	9
Mara	46	36	Tanga	36	19
Mbeya	21	8			
			Total	36	19

자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Development Strategy and Governance Division, April 2005.

2) 빈곤 퇴치 전략

탄자니아는 1961년 독립 이후 많은 국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국가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장기 개발 계획인 Vision 2025와 National Poverty Eradication Strategy(이하, NPES) 중기 개발 계획인 빈곤 감소 전략인 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이하, NSGRP)로 구분된다.

(1) Vision 2025와 Vision 2020

Vision 2025는 2020년 최빈국 줄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 개발 전략 및 가이드라인이다. 이 전략은 삶의 질 향상, 거버넌스 제고와 법치 체제 구축, 경쟁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잔지바르의 장기 개발 계획인 Vision 2020은 2020년까지 도시 및 농촌의 절대 빈곤층 퇴치를 목표로 하며 경제 구조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경제 개

발 환경 구축, 사회 구조 개선,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평화와 정부 안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2) 탄자니아 빈곤 감소 전략(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NSGRP)

NSGRP는 기존의 ‘Vision 2025’를 발전시킨 중기 발전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경제 개발 및 빈곤 퇴치 전략이다. 이 전략은 성장 및 빈곤 감소, 삶의 질 복지 수준 향상, 거버넌스 제고 및 책임성 증진을 3대 목표로 한다.

탄자니아의 안정된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이 2005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고, 빈곤선 이하 인구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아 양질의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삶의 질 및 복지 수준 향상 지표는 초등학교 등록률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식수 접근율과 위생 시설 접근율도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높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와 책임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패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잔지바르의 중장기 개발 계획은 빈곤 감소 전략(Zanzibar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2007)과 잔지바르 경제 발전 전략(Zanzibar Growth Strategy 2006-2015)으로 구성된다. 이 계획은 성장 및 빈곤 감소, 삶의 질 및 복지 수준 향상, 거버넌스 제고 및 단합 등을 목표로 한다.

3. 개발 원조 체제

1) 탄자니아의 수원 체제

탄자니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탄자니아로 유입되는 원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무부는 공여국·공여 기관과 협의하여 원조 규모와 원조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때 외국의 원조가 자국의 국가 경제 개발 계획(Vision 2025, NSGRP)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일반 재정 지원 원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자니아 정

부는 정부 재정의 계획에서부터 평가까지 ① 계획 : 3년 단위의 중기 정부 지출 계획(MTEF) ② 집행 : 공공 재정 관리 체계(PFM) ③ 평가 : 공공 지출 평가(Public Expenditure Review, PER)의 프로세스를 따른다.

〈표 6〉 탄자니아의 행정 및 재정 개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기	주요 내용
공공재정관리개혁 (PFMRP)	1997-	- 중기정부지출계획(MTEF)을 도입 - 공정한 평가를 위한 PER 도입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지출 관리를 위해 중앙 지출 관리 시스템(Centralised Payment Sytem) 도입 - 전산 시스템인 통합관리시스템 IFMS 도입 - 공여국은 Basket Fund 형태로 지원
공공서비스 개혁 프로그램 (PSRP)	2000 - 2011	- 공무원 봉급체계 개선 - 공기업 매각을 통한 공공부문 규모 축소 -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도입, 감시기능 강화 -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 강화
지방행정 개혁프로그램 (LGRP)	2000-	- 지방 정부의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정기 예산 및 개발원조금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 지방정부 공무원의 능력 개발 - 11개 공여국이 지방정부개혁을 위한 Basket Fund 지원
법 부문 개혁프로그램 (LSRP)	2000-	- 법 관련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법 관련 공무원의 능력 개발
부패방지 전략 및 행동계획 (NACSAP)	2000-	-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반부패 Action Plan 수립 - 총리직속의 Good Governance Coordination Unit 신설 - Public Procurement Act, Public Finance Act 등이 도입되어 공공부문 재정관리 투명성 강화

자료 : Kiragu, Kithinki(2005), Tanzania : A case study in comprehensive and programmatic approaches to capacity building. Ministry of Finance(2006),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cluster-wide strategy. 등 참조.

2) 공여국의 협력 체계

탄자니아 내 원조 공여국 그룹(Development Partner's Group, 이하 DPG)³⁾이 주축이 되어 원조 공여국 간의 원조 협력 및 공여국-탄자니아 정부와의 협력을 주도한다. 탄자니아 정부와 DPG는 2006년 12월에 '2006~2010년 중

기 공동 지원 전략(Joint Assistance Strategy for Tanzania, 이하 JAST)'을 수립하여, 주인 의식 강화, 공여국 간 조화 등 원조 효과성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공여국간 상호 협력 및 업무 조정을 위한 역할 부담(Division of Labor) 움직임이 강해짐에 따라, 공여국들은 탄자니아의 경제 개발 계획이 정한 3개 클러스터를 세분하여 11개 Working Group을 형성하여 자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부문에 Lead, Active, Delegate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3) 모니터링 체계

탄자니아 정부는 일반 재정 지원 원조를 모니터링 하는 'NSGRP Monitoring System'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탄자니아 빈곤 상황, 거시 지표 등의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세우고, 지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NSGRP와 공여국의 원조 효과를 측정한다. 공여국들은 Public Expenditure tracking System을 통해 일반 재정 지원을 형태로 지원한 원조의 지출 금액과 지출 분야 등을 모니터링 하며, JAST는 'JAST Monitoring Framework'를 통해 탄자니아의 빈곤 상황과 원조 효율성 관련 지표를 설정·평가한다. 이와에 독립 감시 기구(Independent Monitoring Group)를 두어 원조 수행의 효율성 등을 3년 주기로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4) 탄자니아의 원조 수행 체계 평가 : 파리선언 지표 활용

'2008년 파리선언 이행 평가 보고서(Evalu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수원국의 주인 의식, 원조 성과 관리, 상호 책임 등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7〉 탄자니아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

목표	2007년	개선점	개선방안
주인의식	달성	지방정부의 주인의식 및 원조역량 부족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확산되어야 함.
공여국 원조와 수원국 개발전략의 일치	보통	원조집행 절차에서 수원국과 개발전략 일치 부족	국가재정기획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조 집행 시에도 탄자니아 개발 전략 반영
원조 공여국간 조화	보통	공동 현지조사단 부재	공여국간 공동 목표 설정 및 공동 프로젝트 운영
성과 중심의 관리	달성	최신 원조 통계 부족	통계 구축
상호책임	달성	시민사회 참여 부족	JAST에 대한 중간 평가 실시

자료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3차 고위급 회담. 2008년 9월 2~4일, 가나, 아크라 발표자료. Effective AID by 2010? What it will t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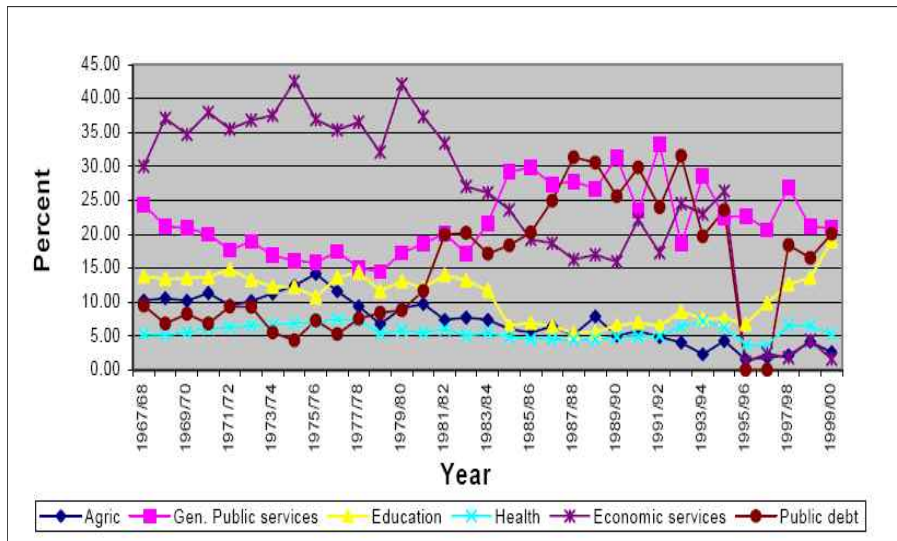
4. 주요 경제 부문 동향과 향후 발전 전략

탄자니아 정부는 공공 투자를 위한 정부 지출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정부 예산 예측(Government Budget Estimates)보고서로 발간한다. 이들 보고서에는 각 회계 연도의 시작에 ‘예측된’ 수익 및 예산에 대한 내용과 이전 회계 연도의 수익과 지출에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부(Ministry of Finance)에서 정부 기관이나 부서가 제출한 예측이나 제안을 사용하여 예산을 준비하는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예산 보고서는 기타 정부 기관, 대학 및 공공 도서관에 비치되지만 일관적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경제부가 예산 및 지출 시스템을 컴퓨터화 하여 향후에는 내용 열람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부 부처 및 연구소에서 집계한 예산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될 것이다.

일반 재정 지원은 국제 원조를 바탕으로 탄자니아 빈곤 상황, 거시 지표 등의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세우고, 지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공여국의 원조 효과를 측정한다. 공공 지출은 크게 ‘정기 지출’과 ‘개발 지출’이란 예산 항목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정기 지출은 정부의 운영(공무원 임금 및 간접비) 및 공공 서비스 제공(학교 교과서 및 의약품)에 쓰이고 있으며, 개발 예산 지출은 도로, 다리, 해안선 정비 등의 공공사업 및 투자에 사용된다. 각 예산은

정부 기관 지출, 지역 지출 및 지방 정부 지출로 나뉜다. 전체 정부 지출은 1986년의 3260억 탄자니아 실링에서 6020억 탄자니아 실링으로 증가하였다. GDP가 비슷한 비율로 성장하였으므로 GDP에서 공공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선에서 큰 변화가 없다. 예산의 부문 별 할당액은 계속 변경되었으며, 이는 변동이 심한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의 60% 이상이 해외 원조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 중 사회 서비스 지출이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여 연간 9%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사회 서비스 지출이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14%에서 1999년 25%로 증가하였다. 경제 서비스 지출 또한 변동이 심한데 1986년 640억 실링에서 증가하여 1995년 1350억 실링으로 최대에 이르렀고, 1996년에는 360억 실링으로 하락하였다. 경제 서비스 지출은 1999년에서야 1280억 실링으로 회복되었다. 탄자니아 정부의 공공 부문 재정 지출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추이



1) 농업 부문의 성장

탄자니아에서 지난 40년간 전체 GDP의 50%를 차지하고 국민의 80%가까 이가 농업과 관련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 부문이다. 이처럼 빈곤과 저개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전근대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은 농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의 발전 기반이 취약한 여건에서 농업은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업 여건은 불리한 기후 조건, 열악한 토양 등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농업 인프라 미비, 아프리카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계 무역 환경, 외국인 투자 및 대외 원조의 감소 등으로 극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탄자니아의 농업 부문은 연평균 성장률 3.1%를 기록하여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일인당 농업 GDP를 달러로 환산해 보면 1970년 177\$이던 것이 2000년에는 191\$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이뤄 낸 실질 농업 성장의 수준으로는 농촌 빈곤층의 숫자에 큰 변화를 가져 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간 인구 성장률이 2.8%로 빠르게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일인당 농업 GDP 성장률은 연간 0.3% 저성장애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탄자니아의 빈곤층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고 할 때, 농촌 빈곤 퇴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이 더 빨리 성장해야 한다. 탄자니아의 농업 부문의 성과가 미미했던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가족 영농 중심의 수작업 경작에만 크게 의존해 오고 있어 주요한 기술 영농이나 고부가 가치 작물로의 농작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난 10년 여 간 산업별 유인 구조 중 농업 부문의 성장이나 투자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여 산업제 가격 대비 농업 생산자 가격의 상대적인 변화로 측정되는 농업 교역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셋째, 최근 수년간 단행된 세금 합리화 및 간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업 유통 과정에서의 상당한 직·간접세가 부과되어 농민의 실직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Ministry of

Agriculture UTR, 2001).

따라서 빈곤층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만큼 농업 개발에 따른 식량 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기아 문제 해결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사실, 농업은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농업 발전 없이는 빈곤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에 따른 식량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농업의 발전이 시급하다(박영호, 2011).

국제 기구와 선진 원조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에 있어 농업 및 농촌 개발이 야말로 빈곤 해소를 위한 일차적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지난 반세기에 걸쳐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왔다. 하지만 접근 전략상의 한계와 아프리카의 흡수 능력(absorptive capacity) 부족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제 사회의 아프리카 농업 개발은 1950~60년대의 지역 개발(CD), 1970년대의 농촌 종합 개발(IRD), 그리고 1980년대의 지역 단위 농촌 개발(CBRD) 등과 같이 시대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 왔으나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탄자니아의 농업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 농업 기술의 증진, 농기계의 현대화, 관개 시설의 보수, 전력 및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교육 분야

탄자니아는 스와힐리어³⁾와 영어를 공용어로 교육시키고 초등학교 고학년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영어를 배운다. 초등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학비를 제외하고는 기타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함으로 빈곤 가정 학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50%가 초등교육을 마치고, 그 중의 30%가 중등 교육을 받는다.

1995년에 15세 이상의 인구 문맹률은 22.2%이고 같은 해에 교육 분야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1997년 초 탄자니아 정부는 기초 교육 발전을 위해 초

2) World Bank. 2009. Distortions to Agricultural Incentives in Africa. World Bank Washington D.C.

3) Miguel(2004)는 1960년대 중반에 스와힐리어를 국어로 채택함으로써 탄자니아에서 인종적 분쟁을 잠재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Miguel 2004, 335).

등 교육 마스터 플랜(BEMP: Basic Education Master Plan)을 세워 지역 학교 위원회를 발족하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그를 위해 협조하도록 우선권을 주었다. 대부분의 학교는 국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종교 단체나 자발적 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나영심 2009, 11-15).

〈표 8〉 행정구역별 초등학교 취학률

(%)

행정구역	1995년	2000년	행정구역	1995년	2000년
Arusha	73	79.4	Morogoro	79	80.9
Coast	74	92.2	Mtwara	78	72.7
Dodoma	67	73.9	Mwanza	75	76.1
Iringa	87	93.2	Rukwa	65	67.8
Kagera	66	67.4	Ruvuma	80	86.5
Kigoma	66	74.1	Shinyanga	73	70.1
Kilimanjaro	100	91.9	Singida	75	86.1
Lindi	64	50.8	Tabora	63	50.5
Mara	92	84.8	Tanga	77	76.9
Mbeya	80	85.5	TOTAL	75.4	76.9

자료: Basic Statistics in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various years.

1986년을 기점으로 탄자니아는 전체 정부 지출 중 220억 실링을 교육 분야에 할당 하였으며, 이는 1999년 820억 실링으로 증가하여 연간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GDP와 대비해볼 때 1988년 0.9%에서 1999년 2.3%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1998년 평균 15%에서 54.3%로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입학률이 상승하였다(Fan and Rao 2003). 탄자니아의 주요 행정 지역별 초등학교 취학률을 1995년 대비 2,000년간의 초등학교 취학률을 살펴보면 1995년 19개 주요 도시의 평균 취학률은 75.4%이던 것이 2000년에는 76.9%로 1.5%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한 Lindi(50.8%)와 Tabora(50.5%)로 가장 낮은 취학률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Coast(92.2%)와 Iringa(93.2%)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4) 2003년 현재 취학 아동의 초

등학교 진학률 88.5%, 중등학교 진학 수는 35만 명으로 인구의 10%에 머물러 있다. 1995년과 2000년의 초등학교 취학률을 행정 구역별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3) 보건·의료 분야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보건·의료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부족한 전문 의료 인력, 공공 의료기관 시설 및 자원 등 보건 지표는 열악한 수준이다. 현재 탄자니아에는 3차 진료 병원 4개, 2차 진료 병원은 87개, 1차 진료 병원은 4,512개가 있으며, 다르에스살렘 지역에서는 무힘빌리 국립병원이 3차 진료 병원으로는 유일하며, 현재 1,060병상의 시설에 1,200병상을 가동하는 등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운영할 정도로 3차 진료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 4백만 명의 다르에스살렘 및 인근 지역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3차 진료 병원 수요가 무힘빌리 국립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탄자니아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0.2/10,000명으로 WHO의 개발도상국 권고 기준인 1/10,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의료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다. 보건·의료 시설 또한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HIV/AIDS, 수인성 질환, 말라리아 등 질병으로 인해 영아 사망률이 112/1천명, 모성 사망률 578/100천 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1년 탄자니아 보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일인당 보건 관련 지출경비는 US\$ 11.37이며, 평균 수명은 1960년 40.7세에서 2000년 48세로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명 78.9세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5세 이하 영아 사망률⁵⁾은 1,000명 당 1975년의 244명에서 1995년 169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 8.1명의 20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OECD Health Data 2007).

- 4) 남부 해안지대인 Lindi는 연 강수량이 500mm~1000mm이며 어업이 중요한 활동이고 쌀과 캐슈넛이 주요 농작물이다. 중부지대인 Tabora는 탄자니아에서 가장 건조한 지대로 연간 강수량이 500mm에 미치지 못한다. 주요 작물은 기장과 수수이다.
- 5) 영아 사망률은 해당 연도 출생아 가운데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수를 출생아 천명 당으로 나타내는 보건 지표(영아 사망 수/해당 연도 출생아 수)로 국제적으로 국민 보건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2001년 탄자니아 국가 통계 자료를 통해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 의료 센터 또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환자들이 이동해야 할 거리는 10~30km에 달하며, Rukwa 주민들의 경우 인근 병원까지의 거리가 66km으로 가장 멀게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질병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교육, 의료 시설 확충, 살충제와 모기장 등 예방 도구 보급, 전문 보건인 양성 등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탄자니아의 영아 사망률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영아 사망률

(명)

지역	1975년		1985년		1995년	
	IMR	5세 이하 IMR	IMR	5세 이하 IMR	IMR	5세 이하 IMR
Arusha	108	179	75	119	42	78
Coast	121	204	113	189	105	174
Dodoma	133	225	132	222	130	220
Iringa	152	257	130	220	111	187
Kagera	133	225	130	219	127	212
Kigoma	163	269	115	192	81	137
Kilimanjaro	76	119	67	104	59	90
Lindi	151	255	140	236	129	218
Mara	140	236	125	211	112	189
Mbeya	161	267	124	209	96	163
Morogoro	140	236	125	211	112	189
Mtwara	161	267	138	233	119	202
Mwanza	139	233	115	192	95	157
Rukwa	170	283	131	221	101	172
Ruvuma	145	245	113	188	88	143
Shinyanga	150	252	110	183	81	131
Singida	137	231	96	157	67	106
Tabora	140	236	101	166	73	116
Tanga	112	187	106	186	100	166

주 : IMR=Infant Mortality Rate

자료: Poverty and Welfare Monitoring Indicators, Vice Present's Office URT, 2000.

탄자니아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 인구의 55%가 개량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골 가구의 대략 47% 아직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위생에 치명적인 수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원 지역에 있는 식수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자와 아이들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시골 가구의 대다수가 적당한 위생적 사용이 불가능한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을 뿐이다.

Ⅲ. 결론

탄자니아는 2015년까지 개도국의 빈곤 해소를 목표로 2000년부터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경제 개혁을 통한 빈곤 퇴치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탄자니아의 가장 큰 의문은 대규모의 개발 원조 수혜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하는 것인데 이를 규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최근 경제성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여전히 만연하여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탄자니아의 인적 자원, 지방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었거나 적절한 재정 투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예산의 60% 이상이 해외 원조로 충당되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 개발에 위한 우선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공공 투자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가 경제 개발을 이루고 중국적으로는 빈곤 퇴치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탄자니아의 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소득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의 개선 및 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적 부조 시스템 구축 및 좋은 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각 정부 부처들의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빈곤층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 투자 또한 지출된 실링 당 일인당 소득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탄자니아의 모든 지역에서 교육 투자 증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특히 빈

곤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남부 산악지대, 중부 및 서부 지대 등 지역별 편차에 따른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 연구들이 그렇듯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지표 및 공공 자본 데이터가 부족함에서 오는 조사 분석의 어려움이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특히 지역별로 분리된 데이터가 부족하여 연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투자에 대한 부분적인 데이터에서 예측된 단위 비용을 사용하거나 가계 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참고 문헌

- 권명식. (1990). 탄자니아의 언어상황과 언어정책,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1):147-183.
- 김광수. (2007). 탄자니아의 언어정책과 국가건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독립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8집 pp.3-40.
- 김국신. (1992). 탄자니아에서의 사회주의의 변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pp. 207-233.
- 나영심. (2009). 탄자니아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 텡가팅가 미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 (2011). 아프리카 환경문제와 빈곤과의 상관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10.
- 박영호·정지선·허운선. (2009).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9-22.
- 에프릴 고든·도널드 고든 편저. (2002). 「현대 아프리카의 이해」, 김광수 옮김, 다해출판.
- 전승훈·허길행·유철·최미애. (20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구연구시리즈 07-07.

- 한국무역보험공사. (2009). 「탄자니아국 정치·경제 동향」,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부 국별평가팀. 2009년 10월.
- 한양환. (1999). 아프리카의 종족분류: 후투-투치족간 갈등의 역사적 배경과 그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국제정치논총. 39(1): 395-415.
- Danielle Resnick. (2004). Smallholder African Agriculture: Progress and Problems in Confronting Hunger and Poverty.
- Fan, S., and N. Rao. (2003). Public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Trend, Determination and Impact. EPTD Discussion Paper No. 99, Washington, D. 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Louis Putterman. (1995). Economic Reform and Smallholder Agriculture in Tanzania: A Discussion of Recent Market Liberalization, Road Rehabilitation,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Efforts, World Development, 23(2): 311-326.
- Miguel, Edward. (2004). Tribe or nation?: Nation building and public goods in Kenya versus Tanzania. World Politics. 56(3): 327-362.
- Shenggen Fan, David Nyange and Neetha Rao. (2005). Public Invest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Tanzania: Evidence from Household Survey Data.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Stabler, E., (1979). Kenya and Tanzania: Strategies and realities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African Affairs 78(310): 33-56.
- URT, Basic Statistics in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various years.
- URT. (2005).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Strategy(ASDS), Government Programme Document.
- UTR. (2001). Basic Data: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Ministry of Agriculture.
- Vice President's Office. (2005). 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NSGRP),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June 2005.



Economic Reform and Poverty Alleviation Strategy of United Republic of Tanzania

Kim, Young Je
Yonsei University, Korea

Lee, Kyu Jae
Yonsei University, Korea

This study review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nd economic reforms,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of Tanzania. Its public expenditure, economic growth, and other sectoral performances are mainly discussed using pooled time-series and cross-region data. Tanzania is one of poorest countries in East Africa. Like many other African countries, most of its budget is financed by donors, which leads to high dependence on foreign aid. Despite its effort, it is becoming harder for Tanzania to escape from poverty. Considering the trend in its public spending, Tanzania continues to increase investments in agriculture, roads, and education. However, it does not reac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through economic performances. For a future success in poverty reduction, Tanzania needs to reconstruct the country by increasing in income and living standard, establishing good governance arrangements, preventing corruption, and building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Key Words: Tanzania,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reform, poverty alleviation, poverty ratio]

논문접수일: 2011.05.31

제1저자: 김영제(연세대학교)

소속 및 직위: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교육전문연구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번지 연세대학교 정의관 316호

전화번호: 033-760-2534

이메일: kyj9989@yonsei.ac.kr

제2저자: 이규재(연세대학교)

소속 및 직위: 원주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교수

주소: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번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전화번호: 033-741-0331

이메일: medbio@yonsei.ac.kr